

'26년도 남동구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공시

남동구는 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16,283개 창출과 고용률 68.6% 달성을 목표로 한 '2026년도 남동구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을 수립·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민선8기 남동구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을 토대로 올해 목표와 대책을 공표한 것으로, 민선8기 일자리 정책 추진 전략과 핵심과제를 반영하고,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수립했다.

올해 남동구 일자리 정책은 ▲ 남동국가산업단지와 함께 도약하는 남동 ▲ 청년이 머물고 싶은 남동 ▲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남동 ▲ 상생으로 성장하는 남동 ▲ 미래 일자리를 준비하는 남동 등 5대 추진 전략과 분야별 실천 과제 25개로 구성됐다.

특히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이 밀집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해 기업 성장 지원과 근로환경 개선을 병행하는 현장 중심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남동구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지속적인 인구 감소, 고령화로 지역 고용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는 민선8기 공약사항인 '활기찬 경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16,283개를 창출하고, 지역 고용률(15~64세)을 기존 68.4%에서 68.6%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부평구, '우리 아이 안전한 골목 만들기' 사업 추진

부평구가 동수초등학교 일대 등 범죄 및 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 안전한 골목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앞서 인천시 공모사업인 '2026년 안전예방시설물 설치 사업'에 최종 선정돼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대상 지역은 동수초등학교 일대와 장제로38번길 등이며, 세부 추진 절차 등을 걸쳐 올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동수초등학교 인근은 어린이 통행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외부 통학로와 골목길 구간에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해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부평구는 경찰서와 협력해 지리적 프로파일링(Geopro) 분석을 실시하고, 112 신고와 5대 범죄 발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 취약지역을 선정했다. 분석 결과, 동수초등학교 일대와 인근 골목길은 주변이 어둡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범죄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 및 안내시설 설치 ▲학교 옹벽 LED 조명 변화 조성 ▲골목길 보도 개선과 '안심 빛길' 조성 등 안전예방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을 적용해 어린이 통학로부터 주거지까지 이어지는 생활 동선을 개선하고, 주민 체감 안전도를 높일 방침이다.

인천시, 중앙아시아 의료관광 시장 공략 나서

카자흐·우즈베크 설명회 성료...B2B 상담 831건·25건 MOU로 협력 기반 구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는 '탐메디컬인천'과 함께 중앙아시아 의료관광 시장 선점을 위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개최한 '인천 의료관광 설명회 및 B2B 상담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31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히틀 아스타나), 4월 2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원뎀 타슈켄트)에서 각각 진행됐으며 현지 주요 송출 여행사와 의료관계자 등 총 9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 의료관광 특화상품 공동 마케팅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총 831건의 카자흐스탄 428건, 우즈베키스탄 403건의 B2B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방문 기간 동안 현지 유

력 에이전시와 총 25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며, 단순 홍보를 넘어선 실질적인 환자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

본 행사에는 '탐메디컬인천' 소속의 가천대 길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하대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나은병원, 아인병원, 아이아인안과의원, 엘리트성형외과, 제이케이위드미의원 등 9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와우보스, ㈜알지팩토리, ㈜오키즈 등 3개 유치사업자가 참여해 인천의 우수한 중증질환 치료 기술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집중 홍보했다.

인천시는 설명회 외에도 주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해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원활화 등 현안을 논의하고,

현지 유력 에이전시인 'SkyDi Travel' 등을 직접 방문해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김순심 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중앙아시아는 방인 외국인 환자 1인당 지출액이 가장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구축한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환자들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글로벌 의료관광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대공원에서 '대시민 피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 안전문화 체험축제인 '제11회 재난안전전시회'와 연계해 진행되며, 인천경찰청,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농협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주요 수법과 대처 방법을 알기 쉽게 담은 홍보 영상 상영, 예방 리플릿 및 홍보품을 배부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금융사기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인천시는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4월 1일부터 아파트 단지 게시판을 활용한 주민 밀착형 홍보 캠페인도 함께 추진하며 보다 폭넓은 시민층에게 피해 예방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심하린 기자

강화군, 첫 파크골프장 착공식 개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2일 양도면 건평리 일원에서 강화군 최초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알리는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파크골프는 짧은 채와 큰 공을 사용해 즐기는 간소화된 골프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스포츠다. 특히 최근에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7억 원을 투입해 약 6,500평(21,463㎡)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게 된다.

강화군은 2024년 11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한 데 이어, 2025년 4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는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착공식을 기점으로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대 간 소통과 공동체 화합을 이끄는 지역 거점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파크골프장은 군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넘어, 강화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강화군 최초의 파크골프장이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건강과 활력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옹진군, 점농어 종자 16만마리 방류



옹진군은 3일 관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복도면 장봉어업인 해역에 어린 점농어 종자 16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점농어는 서해 연안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성장 속도가 빨라 자원 조성 효과가 높은 품종으로, 고염분과 저염분을 오가는 환경 변화에도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장봉도 인근

해역의 생태계 안정화에 적합한 어종이다. 이번에 방류된 종자는 해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내년에는 상품성 있는 크기로 성장해 지역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류 사업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거친 건강한 종자를 선별해 추진되어 방류 효과와 안정성을 한층 높였다.

군 관계자는 "옹진군 해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뿐만 아니라 바다숲 조성,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풍요로운 어장 조성과 살기 좋은 어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2차 연계기관 협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일 인천시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2차 연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위기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에게 적기에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11개 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10개 기관) ▲병·의원(4개 기관) ▲아동복지관(1개 기관) ▲Wee센터(5개 기관) 등

총 31개 유관기관이 참석해, 4월 중 실시되는 1차 검사 결과에 따라 선정되는 '관심군' 학생의 심층 검사 및 맞춤형 상담 서비스 운영 방안을 공유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전문적인 의료 지원을 위해 병·의원 4곳을 2차 연계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오는 11월까지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2차 연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려 위기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건강한 마음을 바탕으로 학습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서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계양구, 2026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강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2026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본격적인 대응체계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관리와 침수취약주택 보호, 단계별 비상대응 체계 운영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재난대응기구 운영, 재난상황관리 강화,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수방장비 확충, 교육·훈련·홍보 등 풍수해 대응 전 분야를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다.

계양구는 인천지역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상시대비, 초기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1·2·3단계로 이어지는 총 5단

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기상상황과 피해 규모에 따라 단계별 대응수위를 탄력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구는 현재 지정·관리 중인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위기 전 사전 점검과 위기 중 예찰을 강화하고, 추가 위험지역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우선 대피대상자 선정, 주민대피지원단 연계, 지역별 통제기준 마련 등을 통해 주민대피체계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지대 침수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역류방지밸브와 차수관 설치를 지원하고, 하천 및 배수시설 정비, 빗물 펌프장 운영, 수중펌프 전진 배치, 모래주머니와 수방자재 확보 등 현장 대응 체계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구는 그간 침수방지시설 489세대를 지원을 완료했으며, 올해도 위기 전 공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최 GUNPO 주관 구립문화재단

지하철 타고 떠나는 봄꽃여행! 시민의 일상이 축제가 되다

12th 군포철쭉 FESTIVAL

2026.4.18. SAT ~ 4.26. SUN

철쭉동산 · 철쭉공원 · 차없는거리